

무용 교수의 공감적 화법 실행 방법

* 이 지원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감적 화법의 개념과 특성
	III. 공감적 무용교수 화법
	IV. 결론
	참고문헌

*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23.03.04

논문심사일 : 2023.03.07

게재확정일 : 2023.03.12

Proposal for the necessity of empathetic speaking and listening in dance education

Lee, Ji-won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empathetic speech and listening method and to find the cont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empathetic speech and listening method necessary for dance education. Dance education tends to emphasize movement education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based on practical skills in many parts, so there is a tendency to neglect or overlook the part related to verbal communication. Even in dance practical education,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is important because not only the delivery of meaning with students but also empathy, sharing, and psychological communication are required before improving physical function and expression. Therefore, even in dan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mpathy method and look at how to apply and construct the concept in the class. Empathetic speech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e tried to propose the contents by dividing them into mindfulness, linguistic, and non-verbal aspects, and to deal with the applicability of this. It is hoped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a basic study to enhance empathy speech for dance teachers, even if it is weak.

<key words> dance, dance education, empathetic way of speaking and listening, dance class, a dance learner

<주요어> 무용, 무용교육, 공감적 화법, 무용수업, 무용학습자

본 연구는 공감적 화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사가 무용교육에 필요한 공감적 화법의 내용과 실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사의 화법은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학생의 인성이나 정서발달에,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교사의 화법에 따라 수업의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박창균, 이정우, 2011:110). 그만큼 교사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은 학습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무용교육은 대부분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움직임 교육과 표현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그 행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무용 실기 교육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에서 함께하는 학생들과의 공감, 공유, 심리적 교감이 요구되기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상호 소통이 필수적이다. 공감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초적 행위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유하는 배려의 측면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공감적 화법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화법 능력이며, 대화 상대자와 함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과 인격,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정상섭, 2006:16; 김미림, 2011:3). 따라서 공감적 화법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절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에게 교수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교수자는 교육에서의 공감적 화법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주목해야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학습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에 교육의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화법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계획하고 수업에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 “교수자에게는 학생들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열린 마음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수용하고 관찰하여 알아차림으로써 관계지향적인 방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김석일, 양성지, 2018:282).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공감’을 키워드로 한 연구는 상담학, 심리학, 사

회복지학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공감적 의사소통이 부각되어 연구되었고, 관련 연구들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관한 의미를 주시하고 있다”(이수빈, 2017:59). 그러나 무용 분야에서 교수자에게 필요한 공감적 화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KISS와 DBpia에서 ‘무용’과 ‘공감적 화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한 편의 논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학을 중심으로 일반 국어 교과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감적 화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중 “설득화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의사소통 전반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김민정, 2015:5). 2000년대 이후 정상섭(2006)을 필두로 꾸준히 화법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김규훈(2008), 임금선(2008), 오은경(2008), 소미영(2012), 이윤란(2012), 김윤정, 권순희(2015), 경은정(2015), 이수빈(2017), 박교연(2021) 등이 동참하여 공감적 화법의 구체적 내용과 원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화법의 교육 내용에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공감적 듣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용교육이 대부분 실기에 편중되어있고, 교육에 관한 소통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용 실기 수업이라 할지라도 공감적 화법의 개념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망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공감적 화법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무용수업에서 공감적 화법을 어떻게 구분하고 내용을 조직할 것인지 고찰하였다. 셋째, 공감적 화법을 위해 무용교사는 어떠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서는 공감적 화법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이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3장에서는 무용교사에게 요청되는 공감적 화법의 요건을 살피고 공감적 화법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 다음, 무용교육에서의 공감적 화법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화법을 크게 세 가지, 즉 마음가짐, 언어적 측면,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내용을 제안하고 수업 환경 조성과의 함께 그 적용 가능성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무용교사에게 필요한 소양과 능력으로서의 공감적 화법의 분류와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과 검증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무용교사를 위한 공감적 화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II / 공감적 화법의 개념과 특성

1. 공감적 화법의 의미와 개념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두 고운 말의 중요성을 담은 속담으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말할 때 상대방도 친절하게 말하고, 말 덕분에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의 근저에는 서로의 감정이 있다.

공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Hume, D.(1793)은 공감을 낮은 단계의 감정 작용으로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흠의 관점은 Lipps, T.(1903)로 이어졌는데, 그는 공감을 일종의 ‘감정 흥내 내기’라고 보았다. “공감이라는 용어는 Titchener, E.(1909)에 의해 희랍어 *empathia*가 영어로 *empathy*로 번역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이수빈, 2017:51). 어원을 살펴보면, 어두의 *en*은 ‘안’을 뜻하고 *pathos*는 ‘고통, 열정’을 뜻한다. 이것은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 분노, 상냥함, 열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적 경험을 의미한다. 즉 공감에는 내면적 충동이나 마음, 감정, 생각과 같은 정체성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Piaget, J.(1932)와 Mead, G. H.(1934)는 공감을 일종의 인지적 본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인식하였다”(https://adeukes.tistory.com/19). 그리하여 이들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수빈, 2017:52). 이후 “Rogers, C.(1957)는 공감이란 편견 없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이창덕 외, 2000:128).

“동양 철학에서 보면 이동식(1993)은 공감을 이심전심이라 하였고, 허찬희(1991)는 나와 상대방이 통하여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최현섭 외(2007)는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안다는 것으로 보았다”(서영준, 2014:11). 그동안 공감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동서양의 논의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 모두 공감의 의미를 상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김민정, 2015:20-21). 인지적 공감은 공감적 정서와 행동을 이끄는 지적 작용으로, 타인을 지각하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려 하는 것이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이의 상황과 조건을 자신에게 반영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

고 의사소통적 공감은 타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 느낀 바를 표현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역동적 상호작용이고 그 소통 행위의 방법이 바로 화법이다”(이창덕, 2003:11).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 사고와 정서를 공유하는 행위이다. 화법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며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유지, 형성, 발전시킨다. 이러한 “화법은 지식과 정보는 물론,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서영준, 2014:61). 공감적 화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메시지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외부적 표현, 반응, 행동을 중시하며 심리적 공유를 이루어야 한다”(임근선, 2008:15). 따라서, 공감적 화법은 “상대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인지적·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수빈, 2017:59).

2. 공감적 화법의 특성

정상섭(2006)은 의사소통 전개 과정을 공감적 수용, 공감적 이해, 공감적 반응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공감적 수용 단계는 화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다. 대화에서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행위이다. 공감적 수용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수용적 태도로 경청하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공감적 듣기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한다”(임근선, 2008:23).

다음으로, 공감적 이해 단계는 화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대화 참여자는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말하는 이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행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반응 단계는 화자의 감정이나 메시지, 이야기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반응은 공감적 화법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전달적 측면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이 중요하고 화자의 내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음성언어적·비언어적 반

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자를 격려하며 해결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기도 한다”(정상섭, 2006:46-47). “확대해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감적 화법의 실행 방법을 수용적 경청과 개방적 대화 자세, 집중하여 듣기, 적극적 듣기, 정서적 공감, 공감 반응, 대화를 촉진하기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정상섭, 2006:41).

앞서 의사소통 전개 과정을 수용, 이해, 반응의 세 측면으로 나누었듯이 구성 요소를 인지적(이해) 측면과 정의적(수용) 측면, 그리고 신체적(반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 공감적 화법의 구성 요소

교육학자 Bloom, B.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을 언급한 바 있는데,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들의 균형은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의미하기에 중요하다 강조하였다”(이상수, 김현지, 2021:364). 그리하여 <그림 1>에서는 공감적 화법을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요소로 구분한 것은 수업의 목적과 화법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감적 화법에서 개방적 대화 자세, 집중하여 듣기, 적극적 듣기는 인지적 요소에, 수용적 경청과 정서적 공감은 정의적 요소에, 공감 반응과 대화를 촉진하기는 신체적 요소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공감적 화법의 구성 요소 중 인지적 요소는 자아와 타인의 맥락을 인식하고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정의적 요소는 수용적 측면으로 공감적 이해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체적 요소는 반응적 측면으로 행동적 반응 및 표현을 보이는 것이다.

III / 공감적 무용교수 화법

1. 무용교사에게 필요한 공감적 화법

현대 사회는 개인성, 다양성이 부각되고 차별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갈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며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면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역할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공감적 화법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나 훈련사가 아니기에 교수자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고 수업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학습자는 교사에게 배우면서 교육관이 형성된다. 실제로 교사가 듣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나 욕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감소하기도 한다. 교실 안은 학습자가 교사를 상대로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화법을 고민하며 태도를 형성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교과 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무용교사 역시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위해 ‘공감적 화법’을 이룸으로써 수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무용교사는 교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예측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한다. 공감적 화법은 학습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질문하고, 반응하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열린 마음의 호의적 감정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발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뿐 아니라 교육 목표의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학습자가 이후에 이러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용교육은 주로 실기 중심으로 신체를 움직이며 서로 접촉하는 방식이 두드러져 공감적 화법에 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동안 대부분의 무용교사들은 주로 활동에 초점을 둔 관찰과 목적 지향적인 결과에 집중한 신체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무용수업에서 화법은 교수자의 말하기와 움직임 시범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학습자는 몸을 통해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으로 화답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전달 방식에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학습자와의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교수자는 목표 지향적으로 학습자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부정적 언어로 자극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학습자의 요구를 간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무용 실기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공감적 화법이 요청된다. 공감은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의 완성은 소통으로 이어지고 이는 삶의 풍성한 질의 구현과 삶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무용교사는 먼저 학습자를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위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수업 참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돕는 차원에서의 반응이자 피드백이다.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어야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무용 과목을 실기 교과로만 인식하고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무용수업에서는 테크닉이나 움직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질문과 답하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심적 상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움직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무용 과목을 단순히 실기 교과로 치부해 버리면 이는 수련이나 훈련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론적 교육을 포함하여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소통도 이루어진다. 공감은 태도적 측면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토론, 대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업에서 간단한 움직임을 배우는 경우라 하더라도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을 이룬다면 인간이 살아가며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갖추는 기회가 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교과 과정을 이수하며 다른 이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공감과 의사소통은 삶의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교육 현장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업 자체도 실천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에서 얼마나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과 소통하려고 하는지가 학습자들 사이에서 학습된다.

공감적 화법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대화’ 교육을 떠올린다. 그러나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상호 관계와 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특정 담화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화법 전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화자와 청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면서 의

사소통의 최종 목표인 관계적 측면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을 고려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이수빈, 2017:61).

2. 무용교육에서의 공감적 화법의 실행 제안

지금까지 공감적 화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무용교사에게 공감적 화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공감적 화법을 분류하고 무용수업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감의 의미와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감적 화법을 무용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에서 교수가 학습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공감적 화법이 실제 무용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1. 공감적 화법의 분류와 구분

분류	하위 분류
마음가짐(내면)	감정과 정서 수용하기
	관찰하기
	집중하기
언어적 측면	질문하기
	문제 해결하기
	품격 있는 언어로 말하기
	진실 되게 말하기
	존중하며 말하기
	맞장구치며 말하기
비언어적 측면	경청하기
	눈빛
	유사 언어
	표정
	태도

공감적 화법은 크게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뉘며, 여기에 더하여 ‘마음가짐’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소통을 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생각과 결심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언어와 태도로 표출된다. 마음가짐은 감정과

정서 수용하기, 관찰하기, 집중하기로 구분된다. 첫째, 감정과 정서 수용하기는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관찰하기는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집중하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집중하는 것이다. 호프만은 공감을 정서의 감염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는 타인의 처지에 처해보므로써 유발되는 느낌과 경험을 공감이라 하였다. 이는 “정서감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반사적이고 사고적이지 않은 내면적 작동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김승은, 2019:25-26).

언어적 측면은 말을 통해 음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청각적 메시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어적 측면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질문하기는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확인으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키가 된다. 둘째, 문제 해결하기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 코칭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품격 있는 언어로 말하기는 예를 갖추어 단어를 선정하고 긍정적으로 위로하며 대화하는 것이다. 넷째, 진실되게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과 고충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섯째, 존중하며 말하기는 상냥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 맞장구치며 말하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맞장구치며 말하기에 포함된 바꾸어 말하기는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상대방이 감정적인 흥분이나 분노를 진정하게 하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언어적 측면에서 교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말의 빠르기, 세기, 높낮이, 크기 등이 있다. 교사는 느리게, 중간 크기로, 강하지 않게, 온화한 어투로 말하는 것이 좋다.

한편 비언어적 표현은 경청하기, 눈빛, 유사 언어, 표정,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대화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비주얼적 측면에 해당한다. Hinde, R.(1972)와 Myers, C.(1988)는 모두 공감적 화법에서 비언어적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대화에서 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언어적 표현은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임금선(2008) 역시 공감적 화법을 위한 비언어적 표현을 몸짓언어, 공간언어, 침묵으로 분류하여 비언어적 표현에 관한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표정, 말투, 억양, 강세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태도의 측면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높이를 맞추거나 서로의 몸 사이의 공간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가 상대방의 태도나 표정을 모방하는 것은 학습자와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게 이끈다. “최근의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거울신경세포가 있어 공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표정을 모방하게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해리, 손정우, 엄진섭 외, 2012:447). 이는 의사소통에

서 반응과 자세가 대화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것이 곧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는 공감적 화법의 분류에 따른 내용과 수업 장면을 대화 형식으로 조직한 것이다. 각각의 구분을 구성 요소와 함께 도표화 하였다.

표 2. 무용교육에서의 공감적 화법의 내용과 수업 장면 조직

분류	하위 분류	내용	수업 장면 조직	구성 요소
언어적 측면	질문하기	소통의 순환과 개선을 위한 질문하기	1.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묻기 : “아, 그렇구나.. 이게 어려웠구나.. 손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인지적
			2. 상대가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질문하기 : “다른 부분에서는 이동 동작 시을 할 때 어려운 것점이 있니?있었을까?”	인지적
	문제 해결하기	느낌과 욕구를 찾고 부탁하고 코칭 하기	1. 1.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내나의 의견 말하기 : “그래, 아주 잘했다.어! 거기에서 조금만 몸통을 기울여서 다리를 움직이면 더 쉽게 동작을 할 수 있어.”	인지적 반응적신체적
	품격 있는 언어로 말하기	예의를 갖추어 배려하며 대화하기	1. 긍정적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주며 예절 바른예의 있게 말하기 : “굉장한 발전이다. 너는 재능도 있지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 앞으로도 엄청 발전할 거야.”	정의적 신체적반응적
			2. 배려하고 위로하는며 말하기 : “이쪽 위치는 거울이 안 보여서 너네 몸을 바라보기 힘들었겠구나.. 내가 봐줄게. 다시 한번 해볼까?”	정의적 반응적신체적
	진실 되게 말하기	진정성 있게 공감적으로하며 대화하기	1. 1.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 “너는 그게 힘들었겠구나.. 나도 너처럼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몸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답답했을 것 같아.”	인지적 정의적
	존중하며 말하기	상대를 존중하며 고운 말로 상냥하게 말하기	1. 상대방이 존중감을 느끼도록 지지하기 : “와, 정말 자랑스럽다. 대단하구나. 너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보렴.”	정의적
			2. 청유형의 제안으로 상냥하게 말하기 : “턴 동작에서 스포트를 스팟스폿을 정하고 그곳에 시선을 바라보면두면 어떨까? 같이 한번 해볼까?”	정의적 신체적반응적
맞장구치며 말하기	지지하고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1.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말하기 : “그래, 그렇지.. 그 말이 맞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겠네!”	정의적반응적	

언어적 측면	맞장구치며 말하기	지지하고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2.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하는 말하기 : “그럼, 그럼, 괜찮아.. 아주 훌륭하게 한 거야.”	인지적 정의적
			3. 바꾸어 말하기(상대방의 말을 나의 표현으로 진술하기) : “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너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고 느낀다는 거지?”	정의적 신체적반응적
비언어적 측면	경청하기	충실하게 귀담아 듣기	1. 주의 깊게 듣기 2.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듣기 3. 끝까지 듣기 4. 있는 그대로 듣기	정의적
	눈빛	따뜻하고 친밀한 시선	1. 눈과 눈 사이를 응시하기 2. 따뜻하고 친밀하게 바라보기	정의적
	유사 언어	감탄사	1. 1. 감정에 맞는 적절한 반응하기 : “이쿠, 아하, 어머, 아.”	반응정의적
	표정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짓기	1. 듣고 말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표정 짓기 2. 긍정적인 표정 짓기 3. 미소를 띠며 듣는 주제와 관련 있는 표정 짓기	정의적
	태도	이야기를 듣는 적극적 태도와 자세	1. 고개를 끄덕이기 2. 상대방에게 몸의 중심을 기울이기 3. 공간의 간격을 조정하며 몸짓으로 공감하기 4.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말하도록 끼어들지 않고 호응하기 5. 교실 안에서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이동하기 6. 학생과 상대방과 눈 맞추기 위해 자세를 낮추기	정의적 신체적반응적

올바른 인성교육의 시작은 사고와 언어에 대한 교육이고 이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몫이다. 그렇기에 무용 테크닉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수자는 수업에서 어떻게 올바른 소통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공감적 화법을 위해 바람직한 수업 환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무용교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열린 마음으로 학습자를 대하여야 한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 사이사이의 구성을 유연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즉 여러 가능성과 상황을 대비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

기 교육이라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가 말하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 느낌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재 입장에 서서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사는 수업에서는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상호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마주하며 대화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수자라 하더라도 역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에서는 본래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수시로 교체된다. 따라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이 어우러져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공감적 화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대화에서 화법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이해와 표현 즉 듣기와 말하기의 순환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수자가 충분히 자기 노출을 이루어야 학습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진정한 이해가 수반될 때 가능하기에 대화 속에서 서로가 적절하게 자기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상호 간의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이론적 지식을 구비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감적 화법의 실천과 그 중요성에 관한 교육이 실제 대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용전공자는 이미 예비교사로 볼 수 있다. 교육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화법 즉 소통의 측면을 부각하고 교육하여 실제 수업에서 공감적 화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감적 화법에 대한 실천적 차원으로서의 학내 교육도 요청된다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무용교사들이 실제 무용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공감적 화법의 필요성을 자각하거나 이루기 어렵다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공감적 화법은 인간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이는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요구된다. 대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능력은 교실에서 학습되어 사회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감적 화법을 통한 무용교육은 보다 학습자들이 집중하여 흥미와 역동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공감적 화법을 무용 실기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감적 화법을 마음 가짐과 함께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언어적 측면은 질문하기, 문제 해결하기, 품격있게 말하기, 존중하며 말하기, 맞장구치며 말하기로 구분하였고, 비언어적 측면은 경청하기를 포함하여, 눈빛, 유사언어, 표정, 태도를 어떻게 구사하여야 하는지 이를 도표화하여 실제 수업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필요한 ‘열린 마음’과, ‘말할 수 있는 학습자의 환경’, ‘상호대화의 필요성’, ‘친밀한 감정의 교류’로 구분하여 공감적 화법을 위한 바람직한 수업 환경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교사에게 필요한 공감적 화법의 사례를 일부 제안하는 데에 머물렀지만 차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감적 화법의 효과성에 관한 검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언하자면, 무용수업에서의 공감적 화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전공생을 위한 수업 현장에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별 무용수업에서 공감적 화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개발되고, 실제 현장에서 교수자들의 공감적 화법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대상으로 심층적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가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 소통을 이루는 공감적 화법의 시의성을 강조하고 대학 교육에서 그 인식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 | |
|-----------------|---|
| 고경희(2017), | “유아교사를 위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 김규훈(2008), | “텍스트 중심 문법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 김미림(2011), | “공감화법과 개인성격의 상관성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 김민정(2015),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 김석일, 양성지(2018), | “지도자의 공감화법이 대학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2 , 281-296. |
| 김승은(2019), | “초등학교 상담을 위한 교사의 공감적 이해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윤정(2018), “공감 기반 설득 화법 교육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외(2012),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아동의 안면 모방과 정서 공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24(4)**, 433-452.

경은정(2015), “공감화법의 실태와 교육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교연(2021), “공감적 소통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 효과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창균, 이정우(2011), “초중고 교사의 교수 화법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47**, 93-118.

서영준(2014), “공감과 배려의 화법 교수-학습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상수, 김현지(2021), “공감수업 개념 모형의 탐색과 타당화”, 한국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37(2)**, 343-373.

이수빈(2017), “영상 매체의 대화 자료를 활용한 공감화법 교육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창덕(2003), “교사의 화법: 교사화법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과 그 과제”, 한국화법학회, **화법연구 5**, 9-48.

임금선(2008), “공감적 화법 능력 신장을 위한 비언어적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다운(2015), “역할 놀이를 통한 공감적 화법 수업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정혜원(2014), “공감적 화법 기반의 토론 교육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최분이(2016), “노인요양 시설 입소노인의 심리적 요인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스펜서와 뼈아제의 본능적 공감과 정서적 경험 인식 능력, <https://adeukes.tistory.com/19> (2023. 2. 15.)